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순천 청암대 앞 교수 2명 피켓 시위 ‘주목’
강 전 총장 사람들로 이사진 구성...우려 ↑
“투명·공정한 감사 즉각 실시하라” 촉구

지난 6일 오전 8시 순천 청암대 학 앞 4차선 도로변, 약간 싸늘한 찬 바람을 맞으며 교수 2명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이처럼 대학의 잘못을 알리면서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뭔가.

청암대는 66년 전통의 간호보건 인력 양성 기관인 역을 하는 대학이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여년간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2012년 교육부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시범대학, 각종 지표(입시, 취업률, 국제교류, 특성화 등)에서 전국 선두의 직업전문대학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11년 4월 설립자 2세인 강명운 전 총장이 취임한 후 교수들을 부당 해직시키는 등 독선 행정을 펼치면서 대학 위상이 추락했다.

결국 강 전 총장이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나오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기관평가 인증취소와 특성화 전문대학에 지원되던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

지됐다. 설상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돼 행정, 재정적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전직 외교관 출신인 서형원 현 총장이 2017년 10월 부임했다. 서 총장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고 인증도 회복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9년 3월 강 전 총장이 출소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서 총장은 강압에 의해 면직시키고,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음에도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한 데 이어 이사회를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교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강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사회와 대학을 개인 기업 경영 하듯 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이사회가 맞서면서 2019년 5월, 6회 이사회 이후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해왔다.

문제는 강 전 총장의 행동에 줄곧 부당함을 제기해온 이사 3명이 지난달 10일자로 임기가 끝난데 있다. 이들이 물러나면 강 전 총장 아들인 이사장과 측근 이사 2명이



6일 오전 8시 순천 청암대학 앞 4차선 도로변, 약간 싸늘한 찬 바람을 맞으며 교수 2명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매일 1시간 동안 두 사람씩 나와 피켓 시위를 한다.

남는다. 청암학원은 강 전 총장의 딸과 전임 이사장, 재단신하 고등학교 행정실장 출신 등 3명을 교육부에 이사로 신청한 상태다.

강 전 총장의 사람들로 이사진을 구성해 재단을 좌지우지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청암대 교수 노조는 지난달부터 교육부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뜻을 함께한 지역 시민 단체들도 ‘청암학원(청암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교수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청암학원 이사회

재구성에 적극 나서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지역 43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청암학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현덕(순천YMCA 이사장) 청암대학 정상화를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는 “대학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 만큼 지역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됐다”며 “교육발전과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이사회를 새로 구성 해야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복주차에 시야 방해 스티커...온라인 시골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보복주차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진입 과정에서 한 차주 A씨와 승강기가 있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다음 날 주차장에 내려가니 A씨 차량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를 막고있었다고 설명했다.

차량 운전석 앞 유리 좌우, 뒷 유리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주 A씨는 “집에 없어 차를 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옆 차량 주인에게 연락한 뒤에야 글쓴이의 차량을 뺄 수 있었다.

글쓴이는 “A씨가 차빼고 스티커 떼느라 수고했다”는 내용의 조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보복주차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글쓴이는 A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 “양육비 주지 않아”...친부 직접고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혼한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검찰에 고소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7차례 양육자가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날 진행하는 8차 고소는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중학교 1학년 학생 A군은 “그동안 친부가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왔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서에는 양육비 기각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친부인데 왜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군은 또 돈이 없으면 학원에 다니는 것도, 먹는 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상대 7억 가로챈 일당 구속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들을 속여 수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21)를 비롯한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모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 대출 광고’를 하며 미성년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은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달라고 미성년자들에게 요구해 받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부모 신분증 사진과 원격 조종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비대면 대출’을 해서 총 22명에게 7억5000여만원의 가로챘다.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 친모, 혐의 인정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수개월간 8세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씨(38·여)와 공범으로 기소된 애인 B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아동의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과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겠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시키고, 잘 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20대 공범 “조주빈이 시킨 것”

조씨와 공모해 사기 범행...수천만원 편취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이

첫 재판에서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오전 11시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와 이모씨(24)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대한 사기와 총기판매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조주빈이 시켜서 한 것이고, 김씨가 받은 500만원은 몰랐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죄질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시켰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해 구성요건에 해당 안된다”며 조씨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날 피고인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8월13일 오후 4시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김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씨가 당시) 돈이 없었는데, (동네 알던 형인) 김씨를 따라가면 일거리를 줬고 따라가서 일을 도와준 것 뿐이다. 그게 어떻게 공범이 되느냐.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

주광역시 시장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아챘던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씨와 함께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트위터 등에 허위로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201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 마약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329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